

日韓の間に横たわる諸問題

かつて日本と韓国は「近くて遠い国」と言われてきました。文化的にも地理的にも非常に近い両国ですが、かつて日本が韓国を支配していた不幸な過去のために、複雑な国民感情が未だに存在するのも事実です。韓国には日本に興味を持ち、日本人と交流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が大勢いますが、公の場で(とくに過去の)日本を賞賛するのは今でもタブー視されています。また、日本でも民族的偏見から韓国を過小評価する人が一部にいます。しかし、近年これまでになく人と人との交流が盛んになり、自分の目で両国をみて客観的に判断する人が増えています。日本と韓国が本当に「近い国」になれるために私たちには何ができるでしょうか。

한 때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려 왔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양국이지만, 일제강점기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복잡한 국민감정이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일본에 관심이 많고 일본인과 교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공공장소에서 (특히 과거의) 일본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도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민족적 편견부터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일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자신의 눈으로 서로의 나라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정말로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